

# 충신으로 간신으로... 그들은 어떻게 시대를 만들었나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조선의 권력자들**

조민기 지음



이이첨

김자점

김조순

송시열

홍국영

이하응

이이첨, 김자점, 송시열, 홍국영, 김조순, 이하응, 명성황후, 김홍집...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조선의 실력자들이다. 왕조시대 권력은 누가 권력을 쥐느냐에 따라 개인의 명운은 물론 국가의 흥망성쇠까지 좌우된다. 약화된 권력의 끝은 비참했다. 조선의 역사가 이를 증명했으며 현대의 정치사도 예외는 아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권력의 속성 때문이다. "사람을 타락시키는 마물이나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을 뜻하는 권력은 때로는 삶과 죽음을 가르고 백성의 평안과 고통을 결정했다. 왕 못지않은 때로는 왕보다도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시대의 흥망성쇠를 이끌었던 권력자를 다룬 책이 나왔다. '조선의 2

인자들', '조선 임금 잔혹사'의 저자인 조민기가 펴낸 '조선의 권력자들'이 그것. 역사를 매개로 다양한 칼럼을 기고하고 강연을 해온 저자는 이번 책에서 조선왕조의 절정과 몰락의 배후였던 권력자들을 불러낸다. 책에는 왕을 능멸하고 국정을 농단한 회대의 간신부터 망국의 모든 치욕을 떠안은 충신까지 다양한 권력자들이 등장한다. 이들의 삶은, 역사는 거울이라는 단순한 수사를 넘어 명징한 실체로 다가온다. 몰락한 훈구파 자손인 이이첨은 선왕의 영정을 지켜낸 일로 주목받는다. 그러나 그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광해군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했다. 뛰어난 현실감각과

치세술로 정적을 숙청하고 조정을 파탄으로 몰아갔다. 섬기던 임금을 혼군(昏君)으로 이끌었으며 광해군의 치적이 될 수도 있었던 외교마저 제동을 걸었다. 인조반정에 동참해 공신의 반열에 오른 김자점의 평가는 '간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국정을 농단한 주범이었지만 왕실의 외척이기도 했다. 자신의 욕망을 감추지 않고 수단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쥐려 했었다. 결국 그는 역모죄에 연루돼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추앙하는 이들이 대립하는 이들이 극명하게 갈리는 이슈메이커는 단연 송시열이었다. 예법의 대가로 제자가 900여 명에 달할 만큼 학자로서는 철저한 삶을 살았

다. 그러나 칭송만큼 비난도 적지 않았는데, 한때 친구이자 학문적 동지였던 이들과 적이 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저자는 "정치가가 아닌 학자와 어른으로 송시열을 만난 백성들은 하나같이 그를 존경했다"고 부연한다. 외척으로 대변되는 세도정치 하면 떠오르는 이가 홍국영이다. 한때는 정조의 절대적인 지지를 권력을 누렸다. 그러나 흥분한 외척의 지위를 악용하다 몰락하는 것을 지켜보았음에도, 이를 반연교사로 삼지 않았다. 조정의 대신신료를 쥐락펴락하던 그는 왕의 신임을 잃고 젊은 나이에 유배지에서 생을 마감했다. 21세 젊은 나이에 과거에 급제했던 김조

순은 세자의 스승이었고 딸이 왕비로 간택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왕의 장인이라는 자리에 기대 권력을 누리기보다 왕의 정치적 스승 역할을 맡았다. 문제는 그의 사후 막내아들 김좌근이 가문 수장이 되면서 안동 김씨가 세도정치의 정점에 올랐다는 점이다. 결국 세도 정치는 엄청난 폐단을 남기에 이르렀고 나라는 위기에 빠졌다. 김홍집은 개화와 수장이라 할 수 있는 박규수의 제자다. 뛰어난 외교 능력을 겸비했으며 조선 최후의 영의정이자 최초의 총리대신이다. 당시 조선은 외세에 의해 총비박산이 되고 굴욕적인 조약을 맺었다. '매국'라는 지탄을 받으면서까지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일개 대신이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는 명확했다. 김홍집은 아관파천이 있던 날 "나는 조선의 총리대신이다. 다른 나라 군대의 도움을 받아 목숨을 부지하느니 차라리 조선 백성의 손에 죽는 것이 낫다. 그것이 천명이다"라는 말을 남기고 최후를 맞았다. 책에 등장하는 이들을 오늘의 현실 정치에 대입해도 무방하다. 역사는 반복되고 정치는 생물이란 말도 하지 않던가. 저자는 "권력은 사람을 홀리고 미치게 한다. 하지만 정의가 바로 서는 것도 권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중요한 것은 권력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지혜"라고 강조한다. <책비1·1만9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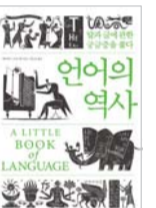
**더 원** 존 마스 지음 강동혁 옮김

아이를 낳고 싶은 이혼녀 맨디는 매치를 만나러 가지만 그는 이미 죽고 냉동 정자만이 남아 있는 상태. 런던 전역을 공포에 빠뜨린 연쇄살인범 크리스토퍼는 경찰인 에이미가 자신의 정체를 모른다는 데 희열을 느끼며, 그녀를 예비 희생자와 조우하게 하는 장난을 친다. 윌스트리트 저널 선정 '최고의 SF스릴러', 2020년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픈 예정, BBC 북클럽 선정 도서인 '더 원'이 출간됐다. 영국 아마존 기준으로 한 권도 빼짐없이 평점 4.5점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존 마스가 작가다. 이번 소설 '더 원'은 '머리카락 한 올만으로 완벽한 파트너와 매칭된다'는 설정이 모티브가 됐다. 유전자를 통해 나와 꼭 맞는 운명의 연인을 만날 수 있다는 가정은 그 자체로 '소설적'이다. 작품은 머리카락 한 올, 입 속에 넣었던 면봉 하나로 완벽한 행복을 보장하는 연인과 연결해주는 가상의 사업 'DNA 매치'를 배경으로 한다. 소설은 소재의 참신함, 인간 본성을 적나라하게 파고든 심리 묘사, 기존의 소설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스타일로 이목을 끈다. 특히 한 페이지 뒤의 일도 예측할 수 없는 서스펜스, 감정 이입을 몰두하게 하는 로맨스,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가 결합된 입체적인 관점이 맞물려 흥미를 끈다. 작가는 'DNA 매치'가 발견돼 상용화된 지 10년이 지난시점을 서사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이혼율이 급격히 높아졌지만 반대로 결혼 역시 신경 쓸 거리조차 안 되는 시대다. 이야기는 운명의 연인을 만나지만 각자 다른 상황에 처하고 마는 다섯 커플의 시점을 통해 역동적으로 전개된다. <다산책방·1만6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언어의 역사** 데이비드 크리스털 지음 서순승 옮김

우리의 모든 사유와 행동은 언어의 지배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사실 인간의 역사에서 언어보다 더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이 있을까, 의문이 들 정도다. 그럼에도 언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이들은 드물다. 언어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그 역사를 들여다본 책이 발견됐다. 세계적인 언어학자인 데이비드 크리스털 영국 웨일스대학교 뱀거 캠퍼스 언어학과 명예교수가 '언어의 역사'를 펴냈다. 저자는 지금까지 언어학, 범죄언어학, 놀이언어학, 셰익스피어 등 다양한 분야의 책 100여 권을 출간했으며 칼럼니스트로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책은 언어에 대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궁금증을 중심으로 모두 40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다. 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읽히는 장점 외에도 각 장 말미에는 연관된 사례와 이야기 등이 덧붙여져 있다. 저자는 전 세계에 6000여 개에 달하는 언어가 있다고 본다. 저마다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발음 규칙, 문법, 어휘, 대화 규칙이 다르다. 또한 표기될 때 나름의 철자법과 구두법이 있으며 말하기와 쓰기 스타일, 방언, 문학 등도 제각각이다. 그럼에도 인간의 언어는 나름의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영국에서 태어난 아기는 영어로, 중국에서 태어난 아기는 중국어로 말을 배우지만 엄마와 아기가 나누는 대화나 언어 습득 과정은 거의 동일하다는 것이다. 저자는 또한 언어폭력과 악플이 난무하는 작금의 시대에, 인간에게 과연 언어란 무엇인가 질문을 던진다. 인신공격성 발언과 악성 댓글이 넘쳐나는 때일수록 시의적절한 말과 글의 선택은 더욱 중요하다. 결국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성찰하게 한다는 데 책의 미덕이 있다. <소소의 책·2만3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안중근의 말** 안중근의사승모회 엮음

"죽음이 두렵지 않다. 고문도 두렵지 않다. 나의 이성과 심장은 너희들에 의해 병들었다. 죽으면서 나는 기쁘다. 나는 조국 해방의 첫 번째 선구자가 될 것이다." 1909년 10월 26일, 만주 하얼빈역에서 총성이 울렸고, 그곳을 방문한 조선통감부 초대통감 이도 히로부미가 사망했다.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우리 민족의 울분과 독립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사건이었다. 그 자리에는 한 청년이 서 있었다. 안중근 의사가 순국을 앞두고 자신의 짧은 삶을 기록한 육독 자서전 '안중근의 말'과 사형 당하기 전까지 쓴 '동양평화론'을 비롯해 그가 남긴 글들을 한글로 옮겨 담은 '안중근의 말'이 출간됐다. 안중근 의사는 32년의 짧은 생애 동안 조국애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평화 구현을 위한 삶을 살았다. 그는 나라의 운명이 스러져갈 때 혈혈단신으로 이역만리 만주 하얼빈역에서 침략의 원흉 이도 히로부미를 처단해, 대한민국의 기개와 한국인의 민족혼이 살아 있음을 전 세계에 알렸다. 이러한 그의 삶은 자서전과 그가 남긴 글들에 남아 있지만 그의 글들은 잘못 전해졌거나 오류인 채로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다. 사단법인 안중근의사승모회는 안중근 의사가 한문으로 쓴 원문을 한글로 옮기고 엮었으며, 안중근 의사에 관한 책과 자료를 중점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을 수정, 보완해 책에 실었다. 책은 '나의 어린 시절', '의협 청년', '독립하는 그날까지', '사람이 희망이다', '피로 결의에 대한 독립', '한국인 안중근', '대한 동포에게 고향' 등 총 1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한다. <이디북스·1만4500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코로나19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정성과 따뜻한 마음으로 진료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ww.gadgethosp.co.kr

### 가제트병원

GADGET HOSPITAL

어깨/팔꿈치/손목/무릎 중점치료  
인공관절, 체외충격파, 무릎줄기세포

☎ 062-710-9111  
광주 남구 대남대로127번길 5(방림동)

www.gcdh.or.kr

### 광주병원

친절한미소 고객을 위한 실천

진료과목

- 내과, 심혈관내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피부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소아정신과, 치과
- 응급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신장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비뇨기과, 전단검사의학과, 신경과, 소아정신과, 치과

광주광역시 북구 면암로 139번길51(두암동)  
(동광주IC 삼성출몰로 맞은편)  
대표전화: 260-7000 FAX: 260-7111

통합의료 복지서비스 선도로 보훈가족에게 신뢰받는 기관

### 보훈공단 광주보훈병원

병원장 김재휴

광산구 첨단월봉로 99  
대표전화 062.602-6114  
응급실 062.602-6119

www.gcdh.or.kr

의료법인 우암의료재단

###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 광주시립정신병원

우암의료재단에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www.ct119.co.kr

민을 돕는 참 좋은 병원

### 광주씨티병원

씨티재활의학과요양병원

광주씨티병원 062.460-7000  
응급실 062.460-7119  
씨티재활의학과 요양병원 062.604-5000

진료내용: 모발이식, 탈모치료

### 더모 헤어플란트

미지에피부과의원

150331-010266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9 (세정아울렛 옆)  
대표전화 062.223-5824